

傳統生活文化를 토대로한 男便의 家庭經營觀과 家事作業에 대한 意識과 遂行

Husband's View of Homemanagement on traditional living-culture as related to
Consciousness and Practice for Housework

성신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李 吉 杓

강 사 朱 英 愛

박사과정 金 仁 玉

Dept. of Homemanagement Sungshin Woman's University

Professor: Lee Kil Pyo

Instructor: Ju Young Ae

Doctoral course: Kim In Ok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결과 및 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usband's view of homemanagement on traditional living-culture as related to consciousness and practice for housework. View of homemanagement is the main concept which continue regardless of era changes of Korean homemanagement. It is appeared in the old book with the authority of educational contents for homemanagement written the criteri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45 husbands living in Seoul. The questionnaire was used as a methodological instrument. Data were analysed by SPSS computer programs. Such method as frequency, F-test, t-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used.

The major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1. The factors of husband's environmental variables(age, education, the number of children, wife's education, the age at marriage, house form)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husband's view of homemanagement.
2. Husband's consciousness for housework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wife's job and practice for housework was influenced by environmental variables(the age at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house form, wife's job).
3. The higher husband's view of homemanagement, the more practice for housework (housing, child and family care, homemanagement).

I. 서론

현대 사회의 가정은 종래의 가정에 비하여 그 구조 및 기능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고, 이에 따라 과거의 가정을 운영하던 방법이나 그 중심이 되었던 가치도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었던 가정의 제반활동도 변화하여 가정경영의 책임은 부부가 그 중심이 됨을(이길표·주영애, 1987) 강조하고 있는 바를 보면, 오늘날에는 가정경영시 부부중 일방에 의한 단독적인 가정경영의 방침이나 목표의 설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부부가 함께 협조하는 가정경영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반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운영의 주된 생각이나 가치관념들을 나타내는 가정경영관은 각종 고문헌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조명해 본 일련의 연구(이영미, 1989; 이길표·주영애, 1989)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에 가정운영을 위한 중요한 가치관념들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바가 많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가정의 소멸론과 위기론이 등장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통가정생활문화를 토대로한 가정경영관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미래에도, 바람직하게 존속할 한국적인 가정생활상을 우리의 옛 전통생활 가운데서 찾고, 우리의 삶을 유도하는 귀중한 가치관념으로 배우면서 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하겠다.

한편 우리사회는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점차 변화하면서 여성들의 교육수준향상과 더불어 사회참여가 확대되어 기존의 성역할 개념이 점차 와해되기에 이르러 가사에 대한 책임과 분담의 경우도 남녀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변화상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윤복자, 1975; 임정빈, 1981; 김규환, 1983; 이정수, 1984).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점차 남편들의 가사분담율은 증가되고 있으나 실제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함이 지적된다.

남성과 여성의 제능력 발달에 있어서 권리와 기회의 평등화는 현대사회의 주요 관심이 되고 있는 바, 이는 가정에서의 부인의 가정운영을 위한 책임의 공동화에서 비로소 가능해 진다.(森ます美外, 1983)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경영의 주체가 되는 부부 중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부인이 담당하고 있었던 바 부부 상호간에 협조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가정운영을 위해서는 남편의 가정경영관과 그들의 가정경영관에 따른 가사협조에 대한 의식과 수행을 우선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함께사는 삶을 최초로 경험하는 가정생활속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안정된 민주사회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찾아 나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는데 의의와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가정경영관과 관련변수

가정경영이란 가족구성원 중 부부가 그 주체가 되어 객체인 가정생활 활동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가치와 기준 그리고 방향을 결정짓고 나아가 가정관리의 방향까지 유도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지향함과 동시에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즉 가정을 운영하기 위한 가정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인간행동이 곧 가정경영인 것이다.

따라서 가정경영관은 가정운영의 지침과 방향을 결정하고 가정경영 행동을 유도하는 생활관념으로 가정이 속해있는 사회를 통해서 혹은 개인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규정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가정경영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나 그 중에서도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온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최근 발표된 몇편의 선행연구에서 고찰되어 왔다.

유교문화가 사회전반을 지배하였던 조선조에서는 유교적인 가치와 질서가 가정경영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조선초기에는 가정운영을 위해서는 유교적 윤리규범과 근면과 검약, 일가화목 등과 관련된 가치관념이 우선적이었으며 여성이 주부로서 가정경영을 위한 일련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되어있었다.

소혜왕후의 「內訓」이나 송시열의 「戒女書」 이항(傳)의 「규등요람」 등에서는 당시 가정경영의 책임을 담당했던 여성들에게 가족관계(부모, 시부모 섬기기, 형제, 친척화목) 및 가사와 관련된 규범을 통해서 근검, 절약정산과 화목, 정성, 효, 순종, 정절, 청결 등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조선조 후기인 18C~19C에 이르러서는 實學思想이 대두되어 가정경영에 있어서는 실리적인 측면의 가치가 강조되어 당시 규범류인 이덕무의 「士小節」과 유증림의 「增補山林經濟」에서는 정숙, 정절, 근검, 효성, 부용(婦容), 부공(婦功), 화목, 정절, 희

생, 가도수호 등의 추구에 대한 내용 등으로 생활규범과 가정운영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가정경영관으로는 가정운영을 위한 근검, 절약, 정성의 정신으로 안살림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가문을 중시하고 가도수호와 일가화목을 유지하는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길표·주영애(1989, pp.269~286)는 여성생활과 가정운영의 지침이 되어왔던 중요한 가치들을 정리하여 현대의 주부들이 이를 얼마큼 수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가정경영관은 17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나타났고, 주로 절제, 절약, 근검, 극기, 체면의식이 남아있으며, 특히 학력을 비롯하여 연령, 수입, 자녀수 종교 등의 조사대상자 환경변인이 가정경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이길표(1989, pp. 5~23)의 연구에서는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가정경영관을 요인분석결과 10개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와의 상관연구를 통해서 연령과 학력이 가정경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p<.01$), 학력이 낮을수록($p<.01$) 전통지향적 경향을 보였으며, 종교별로는 불교집단에서 전통지향적인 가정경영관을 갖고 있으나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성희의 연구(1991)에서는 이길표의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가정경영관 측정척도를 활용하여 도시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관리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라 가정경영관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경영관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경영관과 가정관리능력은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가정경영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가정경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력, 연령, 종교, 수입, 자녀수, 주부의 직업유무 등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길표(1989)의 선행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서 분류한 가정경영관 10개 요인을 기초로 조사 연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요인:부부간·형제간의 화목과 孝를 중시한 孝

親崇仰의 和睦 및 孝友爲主의 傳統的 序次意識

- 2요인:가사에 대한 근검과 금전 사용절약 및 가족의 화목을 강조한 勤儉節約 및 和睦意識
- 3요인:조상에 대한 숭경과 후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責任 및 崇敬
- 4요인:자신의 분수를 아는 가정운영태도를 강조하는 實利的 儉約
- 5요인:청렴한 생활과 옛것을 계승하며 창조하려는 溫故而知新 및 孝誠과 清廉意識
- 6요인:타인을 의식하고 절제하여, 자기를 구천하려는 自我克己의 謹厚와 體面意識
- 7요인:자신의 역경과 고통을 감내하려는 自己犧牲的 謹厚와 體面意識
- 8요인:타인을 의식한 자존의 체면의식을 강조한 顯示的 體面意識
- 9요인:가계계승과 집빈객의 기본예의를 강조한 家督主義 子女觀
- 10요인:태교 및 남녀아의 교육, 교육환경조성을 강조한 傳統的 子女教育觀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가정경영관이란 조선조 규범류에 나타난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가정의 운영방침과 방향결정의 기준이 되는 생활관념이라 하겠다.

2.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 및 수행과 관련 변수

가사작업에 대한 주부들의 노동량 및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가족원의 역할분담 혹은 남편의 협력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남편과 부인의 가사작업에 관한 의식은 그 가치를 평가한 연구(김성희·이기영, 1989, p.20)에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부인보다 남편이 더 의미있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 및 가정의 안정과 관련된 가정적 차원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가사작업 가치를 더 많이 인정하며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인임을 알려주었다. 가사작업 분담에 대한 부부간의 일

치도에 대한 연구(K.P.Goebel & C.B. Hennon, 1984, pp.66~67)에서는 가사작업에 대한 감정은 부부 모두 낮게 인식되었으나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가사작업 수행후 부인보다 남편이 더 높게 나타나 부부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도시남편의 가사 참여에 관한 연구(윤명희, 1985, p.20)에 의하면 남편의 가사작업 참여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77.4%)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참여행동으로 옮기는 정도는 낮게 나타나 가사작업에 대한 남편들의 의식과 수행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비하나마 남편이 주로 참여하는 가사영역은 주생활 부분으로 이는 몇편의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로서 남편에게는 가사분담시 주생활부분에의 참여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따르고(서영숙·조필교, 1976, pp.10~28) 구체적으로는 전기 및 상·하수도 수리나 주택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정우, 1972, p. 766)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남편의 가사활동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집안의 수리」가 남편의 결정적 역할로 인식되었고(이은식, 1976, p.99). 옥선화의 2차에 걸친 연구:(1980, p.88;1982, p.12)에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집수리」가 남편의 역할로 인식되었다.

남편의 가사작업의식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명희의 연구(1985, pp.22~23)에서 연령이 지적되어 남편의 가사참여의 양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많으나, 50대보다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할 수 있는 40대에서 그 참여량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오늘날 핵가족 형태에서의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조사에서(공세권, 1990, pp.118~119) 가족구성원은 연령에 따라 자기 자라온 시대적 환경과 경험이 상이하므로 남편의 가사활동 역할 주도율도 연령이 증가할 수록 낮게 나타났다.

한편 윤명희의 연구(1985, p.23)에서는 남편의 가사참여 및 참여에 대한 태도가 교육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정수(1984, p. 122)의 가족의 가사작업시간과 생활의 질 의식과의 관계연구에서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작업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옥선화(1982, p.26)의 연구에서도 남편의교육정도별로 「간단한 집

수리」와 같은 가사는 교육정도가 중·하층으로 갈수록 더 자신의 일로 인식하는 바가 높은 비율을 보여 남편의 교육수준은 일관성은 없으나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있는 변인이 되고 있다.

자녀수에 따른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태도는(윤명희, 1985, p.26) 자녀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났다으나 실제로 가사에 참여하는 정도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한편 이정수의 두 차례에 걸친 연구에서도(1984, p.122;1985, p.87), 자녀의 연령에 따라 남편의 가사작업 시간에 차이가 나타나 자녀의 수나 연령이 남편의 가사작업 태도 및 수행과 관련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송혜림·이기영(1988, p.34)은 결혼기간이 짧을 때 부인들은 남편의 가사협력을 많이 기대하고 가사수행에 있어서도 남편의 협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가사작업의 태도 및 수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부의 취업과 관련하여 가족원의 가사분담을 조사한 이정우(1972, p.765)의 연구결과 한국가정에서는 주부의 직업유무와 관계없이 그들에 의하여 가정이 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남편 및 자녀에게 뿌리박혀 있다고 하였으나, 80년대의 가사작업에 대한 견해의 변화를 보여준 연구로 임정빈·김명희(1985, p.31)는 주부의 입장에서는 주부의 학력이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일과 그에 따른 보람을 얻기위해 취업을 바라고 있으며 직장을 갖게 되면 가사를 위임하려는 의식이 높다고 하여 주부취업시 가사노동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 역시 변화해야 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또한 송혜림·이기영(1988, p.34)은 주부가 취업했을 때 남편의 협력을 많이 기대하였고 실제 협력도 많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Dolan & Scannell, 1987, pp.397~398), 취업주부가 일반 가정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 더 적었고, 남편들은 부인이 취업했을 때 보다 더 가사에 조력하는 바가 많았다.

따라서 남편들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에 관련된 환경변인으로는 주부의 취업상태를 비롯하여 자녀수 및 자녀의 연령, 남편들의 교육수준과 연령 결혼지속년수 등이 지적되었다.

3.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가정경영관과 가사작업

전통사회에서의 가정경영은 자신의 수신에서부터 부부의 도, 효친, 형제친척간의 화목, 자녀교육, 가사, 봉제사, 접빈객, 가정운영(이영미, 1989)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식·감독·통제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가정경영의 주체는 주부로서 그 일을 주로 담당해 왔다. 이와 관련된 가르침은 가정의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서 비형식적 비제도적인 교육으로 여아와 혼인을 앞둔 규수들에게 실시되었으며(소혜왕후 「內訓」, 송시열 「戒女書」, 이덕무 「士小節」...)이 가르침은 그들의 혼례후 그대로 가정경영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부부를 중심으로한 가정경영의 구체적인 생활목표와 방침의 설정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총자원의 증대와 함께 부부각자가 하나의 주체적인 생활자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써 부부공동의 가정경영시 더욱 조화롭고 건전하며 바람직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서영숙, 조필교, 1976, p.10~23)고 하고 있다. 또한 서구문화의 도입 및 도시화에 따라 가족의 구조적 역할적 변화가 이루어져 남편과 아내사이에 엄격히 구분되어온 역할의 경계선이 점차 융통성을 보이고 있는 점도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경영의 주체가 되는 부부중 가정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주부에게만 초점을 두고 연구해 온 우리의 시각은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자연히 남편의 가정경영에 대한 연구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의 가정경영관에서도 전통사회의 가정경영관의 주요 가치관념들을 수용하고 있는 바(이길표, 1989;이길표·주영애, 1989)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부부 공동참여를 지향하는 현대의 가정경영에 요구되는 가정경영관에 대한 남편들의 의식조사는 그 의의가 깊다. 특히 주부들의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가정경영관의 수용은 오늘날 부부의 역할분담영역에서 아직도 성고정관념적 전통적인 양상을 보이는 가사작업시 실제 부부간의 가사분담 의식과 수행사이에 차이가 있는(상정기, 1975;이은식, 1976:

윤명희, 1985) 상황이므로 남편들에게 전통생활분화를 토대로한 가정경영관과 가사작업 의식 및 수행간의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가정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근검절약이나 온고이지신 및 체면, 검약과 분수에 대한 자녀교육관 등의 하위 가정경영관 영역은 결국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므로(이성희, 1991, pp.64~70) 가정경영관은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가사에 대한 일련의 의식 및 실제 가사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능력과도 관계가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1)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남편의 가정경영관이 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은 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남편의 가정경영관에 따라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은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가정경영관을 조선조(15C~19C)의 규범류를 중심으로 문헌고찰하고 그 중심이 되는 가치를 찾아내어 각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관념을 바탕으로 개발한 이길표(1989) 연구의 측정척도 28개(요인분석후 10개 요인으로 분류됨)를 3단계 Likert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그렇다에 3점, 그저그렇다에 2점, 그렇지 않다에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가정경영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남편들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을 조사하기 위한 측정척도는 윤명희(1985), 김성희·이기영(1989), 이기영·송혜림(1988)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 10문항과 가사작업 수행 20문항으로 총 30문항을 3단계 Likert척

도로 구성하여 그렇다에 3점, 그저그렇다에 2점,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여 각각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이며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인 경우는 남편의 가사작업 참여에 대해서 보다 수용적인 뜻을 가지며, 가사작업의 수행정도가 높다는 의미는 가사 작업에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가정경영관과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의 측정문항은 신뢰도 검증 결과 각각 Cronbach's α 값이 .67, .64, .83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부인과 동거하며 직업을 갖고 있는 기혼 남성 500명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1. 1. 10~1. 17까지 설문지 20부를 서울시 거주 기혼남성에게 배부,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한 후 검토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재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1991. 1. 25~1991. 2. 20까지 실시하였다. S.K. H Apt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남성과 초·중·고 학생들의 아버지, C.H 회사에 재직중인 기혼남성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461부를 회수(회수율 92. 2%)하였으며 부실기재되거나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4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선별된 분석자료는 SPSS Computer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다.

기본적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사항과 각 문항을 빈도분석하였고 본 연구의 3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한 자료분석방법은 일원변량분석, 추후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인 남편은 연령이 40세 이하가 22.9%, 41세~50세 이하가 60.2%, 51세 이상이 16.7%로 40대의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부인은 40세 이하인 경우와 41세~50세이하가 각각 44.7%, 47.9%로 90% 이상을 차지하여 주로 50세이하의 연령층이었다.

남편의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각각 43.6%, 43.1%로 집중되어 분포하였고 부인은 고졸이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현재 남편의 직업은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이 43.4%, 직장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56.5%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결혼지속년수는 10년미만이 12.4%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였고, 10년~15년 미만이 27.9%, 15년~20년 미만이 34.8%, 20년 이상이 24.9%로 세 영역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들 자녀수는 2명이 46.3%, 3명 이상이 41.1%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부모와의 동거형태는 신혼부터 분가한 경우가 53.0%, 일정기간 부모와 동거한 후 분가한 경우가 24.7%로 부모와 현재 분가해 있는 경우가 전체의 80% 정도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옥형태는 단독주택의 경우 재래식 부엌이 13.0%, 입식부엌이 38.0%로 나타났고, 공동주택에서는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13.7% 35.3%로 나타났다.

남편의 형제순위는 장남이 36.2%, 차남이 34.2%, 삼남이하인 경우가 22.0%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외아들은 7.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부인이 취업해 있는 경우가 자녀 성장후 재취업(18.0%)까지 포함하여 29.7%뿐이었고, 대부분의(70.4%) 주부들이 현재 직장이 없었다.

2.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 한 남편의 가정경영관

조사대상자의 환경변인에 따른 남편들의 가정경영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445)

| 구분 | | 빈도 | 평균(%) |
|-----------|---------------|------------|----------|
| 연령 | 남편 | 40세 이하 | 102 22.9 |
| | | 41세~50세이하 | 268 60.2 |
| | | 51세 이상 | 75 16.7 |
| | 부인 | 40세 이하 | 199 44.7 |
| | | 41세~50세 이하 | 213 47.9 |
| | | 51세 이상 | 33 7.4 |
| 학력 | 남편 | 중졸 이하 | 33 7.4 |
| | | 고 졸 | 194 43.6 |
| | | 대 졸 | 192 43.1 |
| | | 대학원졸 이상 | 26 5.8 |
| | 부인 | 중졸 이하 | 88 19.8 |
| | | 고 졸 | 238 53.5 |
| | | 대 졸 | 107 24.0 |
| | | 대학원졸 이상 | 12 2.7 |
| 직업 | 자영업 | 193 43.4 | |
| | 직장에 고용 | 252 56.5 | |
| 결혼지속년수 | 5년 미만 | 27 6.1 | |
| | 5년 이상~10년 미만 | 28 6.3 | |
| | 10년 이상~15년미만 | 124 27.9 | |
| | 15년 이상~20년 미만 | 155 34.8 | |
| | 20년 이상 | 111 24.9 | |
| 자녀수 | 없 | 12 2.7 | |
| | 1명 | 44 9.9 | |
| | 2명 | 206 46.3 | |
| | 3명 이상 | 183 41.1 | |
| 부모와의 동거형태 | 신혼부터 분가 | 236 53.0 | |
| | 분가한 후 동거 | 39 8.8 | |
| | 동거한 후 분가 | 110 24.7 | |
| | 신혼부터 동거 | 60 13.5 | |
| 가옥형태 | 재래식 부엌의 단독주택 | 58 13.0 | |
| | 입식 부엌의 단독주택 | 169 38.0 | |
| | 아파트 | 157 35.3 | |
| | 연립주택 | 61 13.7 | |
| 형제순위 | 장남 | 161 36.2 | |
| | 차남 | 152 34.2 | |
| | 삼남이하 | 98 22.0 | |
| | 외아들 | 34 7.6 | |
| 부인의 취업상태 | 신혼부터 취업 | 52 11.7 | |
| | 자녀출산 후 휴직 | 48 10.8 | |
| | 자녀 성장후 재취업 | 80 18.0 | |
| | 신혼부터 비취업 | 265 59.6 | |

관 10개 요인에 대한 차이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환경 버인남 남녀의 가정경관

| 환경면 | 구분 | 표우위주의 친동생 자녀의여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부모의여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 |
|-----|---|----------------|------|-------------|-------|-------------|------|-------------|------|-------------|---------|-------------|------|-------------|-------|-------------|------|-------------|------|-------------|------|-------------|------|-------------|------|-------------|------|
|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친간생아 및 화목의친 | |
| | | N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 인 | 40세이하 41세~50세이하 51세이상 | 102 | 2.41 | 2.42 | 2.74 | 2.74 | 2.86 | 2.80 | 2.61 | 2.61 | 1.90 | 2.47 | 2.66 | 2.00 | 2.15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 | | 208 | 2.44 | 2.41 | 2.74 | 2.74 | 2.86 | 2.80 | 2.61 | 2.61 | 1.90 | 2.47 | 2.66 | 2.00 | 2.15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 영 | 40세이하 41세~50세이하 51세이상 | 75 | 2.45 | 2.33 | 2.68 | 2.68 | 2.80 | 2.80 | 2.59 | 2.59 | 1.99 | 2.65 | 2.65 | 2.07 | 2.07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 | | 445 | 0.31 | 0.30 | 0.78 | 0.78 | 0.45 | 0.45 | 0.08 | 0.08 | 1.64 | 1.64 | 1.64 | 1.37 | 1.37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1.76 |
| 학 | 중·초·고 대·대학원이상 | 199 | 2.43 | 2.43 | 2.74 | 2.74 | 2.84 | 2.84 | 2.60 | 2.60 | 1.99 | 2.50 | 2.63 | 2.10 | 2.10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 | | 33 | 2.47 | 2.35 | 2.73 | 2.73 | 2.81 | 2.81 | 2.74 | 2.74 | 2.13 | 2.64 | 2.63 | 2.11 | 2.1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 력 | 중·초·고 대·대학원이상 | 45 | 3.56 | 3.72* | 0.33 | 0.30 | 0.88 | 0.88 | 0.30 | 0.30 | 4.45 | 4.45 | 0.13 | 1.13 | 1.13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0.79 |
| | | 88 | 2.50 | 2.37 | 2.68 | 2.68 | 2.82 | 2.82 | 2.63 | 2.63 | 2.23 | 2.58 | 2.66 | 2.02 | 2.02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 작업 |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 | 193 | 2.46 | 2.39 | 2.73 | 2.73 | 2.83 | 2.83 | 2.60 | 2.60 | 2.03 | 2.55 | 2.63 | 2.10 | 2.10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 | | 252 | 2.42 | 2.40 | 2.73 | 2.73 | 2.82 | 2.82 | 2.62 | 2.62 | 2.10 | 2.54 | 2.62 | 2.10 | 2.10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 자녀 | 1명 2명 3명이상 | 47 | 2.42 | 2.44 | 2.77 | 2.77 | 2.89 | 2.89 | 2.69 | 2.69 | 1.79 | 2.52 | 2.65 | 2.17 | 2.17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 | | 28 | 2.45 | 2.42 | 2.75 | 2.75 | 2.88 | 2.88 | 2.57 | 2.57 | 1.95 | 2.50 | 2.61 | 2.02 | 2.02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 수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124 | 2.44 | 2.43 | 2.74 | 2.74 | 2.88 | 2.88 | 2.62 | 2.62 | 2.09 | 2.55 | 2.63 | 2.02 | 2.02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2.41 |
| | | 111 | 2.48 | 2.34 | 2.72 | 2.72 | 2.81 | 2.81 | 2.61 | 2.61 | 2.17 | 2.62 | 2.63 | 2.06 | 2.06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 형태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445 | 1.89 | 2.15 | 0.23 | 0.18 | 0.36 | 0.36 | 0.35 | 0.35 | 3.99** | 0.75 | 0.08 | 1.55 | 1.55 | 1.74 | 1.74 | 1.74 | 1.74 | 1.74 | 1.74 | 1.74 | 1.74 | 1.74 | 1.74 | 1.74 | 1.74 |
| | | 10 | 2.49 | 2.46 | 2.92 | 2.92 | 2.83 | 2.83 | 2.83 | 2.83 | 1.69 | 2.25 | 2.69 | 2.04 | 2.04 | 2.47 | 2.47 | 2.47 | 2.47 | 2.47 | 2.47 | 2.47 | 2.47 | 2.47 | 2.47 | 2.47 | 2.47 |
| 가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44 | 2.34 | 2.41 | 2.69 | 2.69 | 2.89 | 2.89 | 2.65 | 2.65 | 1.87 | 2.48 | 2.64 | 2.14 | 2.14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2.37 |
| | | 206 | 2.41 | 2.39 | 2.70 | 2.70 | 2.81 | 2.81 | 2.57 | 2.57 | 2.06 | 2.51 | 2.59 | 2.04 | 2.04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 수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183 | 2.48 | 2.39 | 2.77 | 2.77 | 2.83 | 2.83 | 2.63 | 2.63 | 2.16 | 2.62 | 2.65 | 2.03 | 2.03 | 2.45 | 2.45 | 2.45 | 2.45 | 2.45 | 2.45 | 2.45 | 2.45 | 2.45 | 2.45 | 2.45 | 2.45 |
| | | 445 | 2.28 | 2.23 | 2.26 | 2.26 | 0.36 | 0.36 | 0.35 | 0.35 | 1.84 | 0.75 | 0.36 | 1.20 | 1.20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3.15 |
| 가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58 | 2.45 | 2.38 | 2.74 | 2.74 | 2.84 | 2.84 | 2.63 | 2.63 | 2.03 | 2.52 | 2.64 | 2.04 | 2.04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 | | 169 | 2.45 | 2.35 | 2.73 | 2.73 | 2.82 | 2.82 | 2.58 | 2.58 | 2.09 | 2.46 | 2.61 | 2.06 | 2.06 | 2.36 | 2.36 | 2.36 | 2.36 | 2.36 | 2.36 | 2.36 | 2.36 | 2.36 | 2.36 | 2.36 | |
| 형태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157 | 2.38 | 2.40 | 2.75 | 2.75 | 2.90 | 2.90 | 2.57 | 2.57 | 1.93 | 2.45 | 2.61 | 2.05 | 2.05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 | | 61 | 2.50 | 2.40 | 2.69 | 2.69 | 2.72 | 2.72 | 2.61 | 2.61 | 2.13 | 2.43 | 2.63 | 1.98 | 1.98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 형태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445 | 2.05 | 3.04* | 0.28 | 0.28 | 0.28 | 0.28 | 0.44 | 0.44 | 6.91*** | 3.38* | 0.11 | 0.78 | 0.78 | 1.85 | 1.85 | 1.85 | 1.85 | 1.85 | 1.85 | 1.85 | 1.85 | 1.85 | 1.85 | 1.85 | 1.85 |
| | | 161 | 2.46 | 2.39 | 2.80 | 2.80 | 2.85 | 2.85 | 2.62 | 2.62 | 2.13 | 2.58 | 2.61 | 2.04 | 2.04 | 2.44 | 2.44 | 2.44 | 2.44 | 2.44 | 2.44 | 2.44 | 2.44 | 2.44 | 2.44 | 2.44 | 2.44 |
| 형태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152 | 2.39 | 2.43 | 2.71 | 2.71 | 2.79 | 2.79 | 2.61 | 2.61 | 2.00 | 2.53 | 2.66 | 2.04 | 2.04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 | | 98 | 2.46 | 2.34 | 2.64 | 2.64 | 2.82 | 2.82 | 2.59 | 2.59 | 2.06 | 2.55 | 2.57 | 2.11 | 2.11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2.40 |
| 형태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34 | 2.44 | 2.40 | 2.75 | 2.75 | 2.88 | 2.88 | 2.57 | 2.57 | 2.11 | 2.41 | 2.66 | 2.10 | 2.10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2.43 |
| | | 445 | 1.09 | 1.71 | 3.59* | 3.59* | 0.61 | 0.61 | 0.18 | 0.18 | 1.84 | 0.68 | 1.31 | 2.41 | 2.41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0.52 | |
| 형태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52 | 2.34 | 2.36 | 2.75 | 2.75 | 2.81 | 2.81 | 2.44 | 2.44 | 2.09 | 2.54 | 2.50 | 2.08 | 2.08 | 2.34 | 2.34 | 2.34 | 2.34 | 2.34 | 2.34 | 2.34 | 2.34 | 2.34 | 2.34 | 2.34 | 2.34 |
| | | 48 | 2.39 | 2.41 | 2.73 | 2.73 | 2.83 | 2.83 | 2.66 | 2.66 | 2.09 | 2.60 | 2.65 | 2.02 | 2.0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
| 형태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80 | 2.45 | 2.42 | 2.70 | 2.70 | 2.81 | 2.81 | 2.59 | 2.59 | 2.15 | 2.64 | 2.59 | 2.10 | 2.10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 | | 265 | 2.46 | 2.40 | 2.74 | 2.74 | 2.83 | 2.83 | 2.64 | 2.64 | 2.04 | 2.51 | 2.65 | 2.02 | 2.0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2.42 | |
| 형태 | 신호부위 부위 동선부위 신호부위 | 445 | 2.12 | 0.44 | 0.43 | 0.43 | 0.06 | 0.06 | 0.44 | 0.44 | 1.16 | 0.95 | 2.53 | 2.78* | 2.78* | 0.37 | 0.37 | 0.37 | 0.37 | 0.37 | 0.37 | 0.37 | 0.37 | 0.37 | 0.37 | 0.37 | 0.37 |

*: P<.05. **: P<.01. ***: P<.001

P<.05, P<.01, P<.001의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석하면, 우선 남편의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自我克己的 謹厚와 體面意識」(P<.001)이 높았고, 41세 이상의 집단과 40세 이하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타인을 의식하여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감내하며, 자신을 구현하려는 체면의식의 일면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통제능력과 더불어 각자에게 주어지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충실해야 하는 개인적 사회적 인 요구가 증대하므로써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남편의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孝親崇拜의 和睦 및 孝友爲主의 傳統的 序次意識」(P<.05)이 높았고, 추후 분석 결과, 고졸이하집단과 대학원졸이상 집단간에 차이가 있으며, 「自我克己的 謹厚와 體面意識」(P<.01)은 중졸이하의 집단이 가장 높고 고졸 대학원졸이상 대졸집단의 순으로 나타났고, 추후분석 결과는 중졸이하 고졸 대졸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학력별로 「傳統的 子女教育觀」(P<.05)의 가정경영관은 차이가 나타난 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바람직한 가르침은 전통적인 가치속에서 발견하고 실천하려는 바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겠다.

부인의 학력별로는 「溫故而知新 및 孝誠과 清廉意識」(P<.01)의 가정경영관에서 차이가 나타난 바, 고졸이 가장 높고 중졸이하와 대학원졸이상, 대졸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후분석결과는 고졸집단과 대졸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自我克己的 謹厚와 體面意識」(P<.001)은 남편의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 집단이 가장 높고 고졸, 대학원졸 이상, 대졸집단의 순으로 나타나, 대졸집단의 경우는 가정경영시 체면이나 자기의 통제 및 절제의식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傳統的인 子女教育觀」(P<.05)은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훈육에는 전통적인 가치를 적용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학력별 가정경영관 전체는 중졸이하와 고졸이

가장 높았고 대학원졸 이상, 대졸의 순으로 나타났고, 추후 분석결과는 고졸이하 집단과 대졸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가정운영시 지침이 되는 남편의 가정경영관은 부인의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부의 가정운영방식이나 교육정도가 남편들의 가정경영관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의 생활교육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부의 결혼지속년수별로는 「自我克己的 謹厚와 體面意識」(P<.01)의 경우 결혼지속년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10년미만인 집단과 10년이상인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녀가 국교시기 이후부터는 아버지로서 자기의 통제 및 체면유지를 위한 의식적인 행동이 일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더우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정경영관으로써 이의식이 높게 나타난(P<.05) 것은 이를 뒤받침하는 결과라 사료된다. 자녀수별로는 「傳統的 子女教育觀」에서 차이가 나타난 바(P<.05)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교육에 있어서 다소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식이 자녀가 없는 집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녀가 없는 경우 현실적인 자녀훈육 및 자녀관계를 통한 문제의 발생 혹은 전통적 양육태도를 고수하는데 필요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인내해 보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로써 전통적인 자녀교육관에 대한 이상적인 동경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가정의 동거형태별로는 「家督主義 子女觀」에서 차이가 나타난 바(P<.01) 신흠때 부터 일정기간 부모님과 함께 동거한 후 분가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흠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과 동거한 경우, 신흠부터 단가살이, 신흠부터 일정기간 분가한 후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단가살이와 분가했다가 동거하는 경우 집단과 일정기간 부모님과 동거한 후 분가한 경우와 지금까지 부모와 동거한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있거나 동거하고 있고 그 기간이 다소 길 때는 傳統的인 家督主義 子女觀을 갖게 되는 바가 높게 나타나 부모와의 동거여부 및 그 기간에 따라 가정을 감독하며 예의 있는 생활을 하는 등의 가르침을 행하게 되는 가정경영관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옥형태별로는 「勤儉節約 및 和睦意識」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 재래식 부엌의 단독주택, 입식부엌의 단독주택거주의 순($P<.05$)이었고 집단별로는 입식부엌의 단독주택거주자와 아파트 거주자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實利的 儉約」의 가정경영관은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입식부엌의 단독주택, 재래식부엌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거주자의 순($<.05$)으로 나타났으며 추후분석 후 아파트거주집단과 연립 및 재래식 부엌의 단독주택 거주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自我克己의 謹厚와 體面意識」의 가정경영관은 재래식 부엌의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입식부엌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거주자, 아파트 거주자순으로 나타났고 집단별로는 아파트 거주자 집단이 다른 집단과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1$)

「自己犧牲的 謹厚와 體面意識」의 가정경영관은 재래식 부엌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입식단독, 아파트, 연립주택 거주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재래식 부엌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거주자간에 차이가 나타났다.($p<.05$) 즉 자기를 이기고 희생하며 체면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옥형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형제순위별로는 가정경영관의 「責任 및 崇敬」의식이 장남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외아들, 차남, 삼남의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별로는 삼남이하 집단과 장남집단이 차이가 있다.($p<.05$) 즉, 형제순위가 장남인 경우는 가정경영시 책임을 지고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등의 숭경의 표시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취업상태별로는 「家督主義 子女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 바($P<.05$), 현재 직장이 없는 주부가 가장 높았으며 자녀성장 후 재취업 상태, 신혼부터 지금까지 취업한 경우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터 취업한 경우의 집단과 자녀가 생긴 후 직장을 그만 두거나 처음부터 직장이 없었던 집단과는 추후분석 결과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家督主義 子女觀을 유지하며 가정운영을 하려는 남편들은 주로 비취업 주부가정의 가장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신혼부터 취업한 경우의 집단은 다른 집단과는 상대적으로 이 家督主義 子女觀의 가정경영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

연령별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단 남편의 연령별 가사작업수행의 5개 영역중 식생활 영역, 주생활 영역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식생활 영역에서는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작업수행이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일수록 가사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40대 이하의 젊은층에 비해 비교적 전통적 습관에 익숙한 40·50대이상의 남편들은 부엌출입을 꺼리어 식사준비는 물론 설거지 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적 경험이나 사고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주생활 영역에서는 남편의 연령이 51세이상인 경우 그 수행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생활 영역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해야할 일이 엄격했던 사회적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연령층에서 가정내의 주태에 관한 일은 남성의 일이라고 인식해 온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남편의 학력별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은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인의 학력별로는 주생활영역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나, 부인의 학력이 낮을수록 남편의 수행정도는 더 높았다. 한편 남편의 직업별 가사작업 의식과 수행에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부부의 결혼지속년수에 따라 남편의 가사작업수행정도는 전체적으로 5년미만의 신혼부부 집단과 5년 이상의 집단간에 $P<.05$ 에서 유의한 차를 보여, 즉 지속연수 5년미만인 젊은 부부의 경우 남편의 가사작업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식생활 영역에서 결혼년수 5년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신혼초기에는 식생활 영역에

<표 3> 환경 변인별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

| 변인 | 구분 | 가사작업의 의식과 수행 | | 수행 | | | | | | | | | | | | | |
|----------------------|--------------|--------------|----------|------|----------|--------|---------|----------|----------|------|-------|------|-------|-------|---------|------|--|
| | | 의식 | | | 주 | | | | 육아가족시중 | | | | 가정경영 | | 계 | | |
| | | N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
| 연령 | 남편 | 40세이하 | 102 | 2.33 | | 1.68 | | 1.69 | B | 2.28 | A | 2.18 | | 2.33 | | 2.03 | |
| | | 41세~50세이하 | 268 | 2.37 | | 1.58 | | 1.53 | A | 2.28 | A | 2.12 | | 2.23 | | 1.95 | |
| | | 51세이상 | 75 | 2.31 | | 1.67 | | 1.50 | A | 2.44 | B | 2.11 | | 2.25 | | 1.99 | |
| | 계 및 F | 445 | 0.96 | | 1.64 | | 4.16* | | 2.86 | | 0.69 | | 1.53 | | 2.12 | | |
| | 부인 | 40세이하 | 199 | 2.37 | | 1.64 | | 1.60 | | 2.26 | | 2.18 | B | 2.28 | | 2.50 | |
| | | 41세~50세이하 | 213 | 2.33 | | 1.60 | | 1.55 | | 2.33 | | 2.09 | A | 2.23 | | 1.96 | |
| 51세이상 | | 33 | 2.31 | | 1.60 | | 1.42 | | 2.40 | | 2.14 | A B | 2.26 | | 1.97 | | |
| 계 및 F | 445 | 0.99 | | 0.32 | | 1.72 | | 1.23 | | 2.48 | | 0.57 | | 1.51 | | | |
| 학력 | 남편 | 중졸이하 | 33 | 2.30 | | 1.57 | | 1.45 | | 2.39 | | 2.10 | | 2.18 | | 1.90 | |
| | | 고 졸 | 194 | 2.36 | | 1.69 | | 1.60 | | 2.38 | | 2.18 | | 2.27 | | 2.02 | |
| | | 대학원졸이상 | 26 | 2.35 | | 1.54 | | 1.54 | | 2.22 | | 2.11 | | 2.25 | | 1.94 | |
| | 계 및 F | 445 | 0.26 | | 2.27 | | 1.17 | | 2.93 | | 1.35 | | 0.31 | | 2.05 | | |
| | 부인 | 중졸이하 | 88 | 2.34 | | 1.63 | | 1.48 | | 2.44 | B | 2.17 | | 2.25 | | 1.99 | |
| | | 고 졸 | 238 | 2.36 | | 1.64 | | 1.56 | | 2.31 | A B | 2.16 | | 2.29 | | 1.99 | |
| 대학원졸이상 | | 12 | 2.22 | | 1.79 | | 1.75 | | 2.21 | A B | 2.04 | | 2.25 | | 2.00 | | |
| 계 및 F | 445 | 0.77 | | 1.21 | | 1.42 | | 3.75* | | 2.37 | | 0.17 | | 1.34 | | | |
| 직업 | 자영업 | 193 | 2.33 | | 1.58 | | 1.54 | | 2.27 | | 2.11 | | 2.23 | | 1.95 | | |
| | 고용직 | 252 | 2.37 | | 1.65 | | 1.58 | | 2.33 | | 2.15 | | 2.27 | | 2.00 | | |
| | 계 및 F | 445 | -1.10 | | -1.55 | | -0.69 | | -1.28 | | -0.84 | | -0.77 | | -1.47 | | |
| 결혼 지속 년수 | 5년 미만 | 27 | 2.38 | | 1.80 | | 1.89 | B | 2.51 | C | 2.23 | | 2.47 | B | 2.18 | B | |
| | 5년이상~10년미만 | 28 | 2.38 | | 1.58 | | 1.61 | A | 1.99 | A | 2.08 | | 2.33 | B | 1.92 | A | |
| | 10년이상~15년미만 | 124 | 2.37 | | 1.57 | | 1.54 | A | 2.24 | B | 2.18 | | 2.22 | A B | 1.96 | A | |
| | 15년이상~20년미만 | 155 | 2.32 | | 1.63 | | 1.54 | A | 2.30 | B C | 2.13 | | 2.27 | A | 1.96 | A | |
| | 20년 이상 | 111 | 2.35 | | 1.63 | | 1.52 | A | 2.42 | C | 2.08 | | 2.22 | A | 1.97 | A | |
| | 계 및 F | 445 | 0.44 | | 1.04 | | 3.01* | | 5.12*** | | 1.20 | | 1.79 | | 2.54* | | |
| 자녀 수 | 없다 | 12 | 2.42 | | 1.83 | | 2.00 | C | 2.56 | B | 2.35 | | 2.50 | | 2.25 | B | |
| | 1명 | 44 | 2.38 | | 1.67 | | 1.69 | B C | 2.06 | A | 2.06 | | 2.32 | | 1.96 | A | |
| | 2명 | 206 | 2.34 | | 1.60 | | 1.58 | A B | 2.21 | A | 2.14 | | 2.26 | | 1.96 | A | |
| | 3명 이상 | 183 | 2.35 | | 1.61 | | 1.49 | A | 2.45 | B | 2.13 | | 2.22 | | 1.96 | A | |
| 계 및 F | 445 | 0.28 | | 0.85 | | 5.11** | | 11.56*** | | 1.51 | | 1.65 | | 3.63* | | | |
| 부모 와의 동거 형태 | 신혼부터 분가 | 236 | 2.36 | | 1.65 | | 1.57 | | 2.25 | | 2.14 | | 2.26 | | 1.97 | | |
| | 분가한 후 동거 | 39 | 2.37 | | 1.51 | | 1.54 | | 2.33 | | 2.10 | | 2.22 | | 1.94 | | |
| | 동거한 후 분가 | 110 | 2.32 | | 1.60 | | 1.56 | | 2.38 | | 2.13 | | 2.28 | | 1.99 | | |
| | 신혼부터 동거 | 60 | 2.34 | | 1.60 | | 1.54 | | 2.34 | | 2.13 | | 2.22 | | 1.97 | | |
| | 계 및 F | 445 | 0.43 | | 0.84 | | 0.07 | | 1.62 | | 0.11 | | 0.25 | | 0.21 | | |
| 가족 형태 | 재래식 부위의 단독주택 | 58 | 2.31 | | 1.69 | B | 1.53 | | 2.47 | B | 2.17 | | 2.29 | | 2.03 | B | |
| | 입식 부위의 단독주택 | 169 | 2.37 | | 1.70 | B | 1.59 | | 2.46 | B | 2.15 | | 2.25 | | 2.03 | B | |
| | 아파트 | 157 | 2.33 | | 1.50 | A | 1.53 | | 2.09 | A | 2.11 | | 2.24 | | 1.90 | A | |
| | 연립주택 | 61 | 2.38 | | 1.63 | B | 1.58 | | 2.24 | A | 2.09 | | 2.26 | | 1.96 | A B | |
| | 계 및 F | 445 | 0.80 | | 4.25** | | 0.42 | | 16.36*** | | 0.54 | | 1.14 | | 4.55** | | |
| 형제 순위 | 장남 | 161 | 2.36 | | 1.65 | | 1.58 | | 2.34 | | 2.16 | | 2.24 | | 2.00 | | |
| | 차남 | 152 | 2.34 | | 1.61 | | 1.59 | | 2.26 | | 2.12 | | 2.27 | | 1.97 | | |
| | 삼남이하 | 98 | 2.34 | | 1.63 | | 1.51 | | 2.31 | | 2.11 | | 2.23 | | 1.96 | | |
| | 외아들 | 34 | 2.39 | | 1.49 | | 1.53 | | 2.33 | | 2.11 | | 2.29 | | 1.95 | | |
| | 계 및 F | 445 | 0.29 | | 0.87 | | 0.58 | | 0.64 | | 0.41 | | 0.24 | | 0.33 | | |
| 부인의 취업 상태 | 신혼부터 취업 | 52 | 2.46 | B C | 1.80 | B C | 1.74 | B | 2.30 | A B | 2.09 | | 2.25 | | 2.03 | B | |
| | 자녀출산후 휴직 | 48 | 2.33 | A B | 1.61 | A B | 1.53 | A B | 2.34 | A B | 2.13 | | 2.27 | | 1.98 | A B | |
| | 자녀성장 후 재취업 | 80 | 2.52 | C | 1.84 | C | 1.71 | B | 2.43 | B | 2.21 | | 2.34 | | 2.11 | B | |
| | 신혼부터 비취업 | 265 | 2.28 | A | 1.52 | A | 1.49 | A | 2.26 | A | 2.12 | | 2.23 | | 1.92 | A | |
| | 계 및 F | 445 | 13.21*** | | 10.06*** | | 6.00*** | | 2.25 | | 1.10 | | 1.28 | | 6.26*** | | |

* : P<.05 ** : P<.01 *** : P<.001

협조하는 바가 많으나 결혼지속년수가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이 뚜렷이 구분되는 가사영역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생활영역에서도 결혼년수가 5년미만인 경우에 남편들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

자녀수에 따른 남편들의 가사작업 의식은 집단간에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았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P<.05$ 에서 집단간에 차이를 나타내,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 없는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나 남편의 가사참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특히 식생활, 주생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윤명희(1985, p.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남편의 가사참여에 대한 태도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긍정적이었으나 실제 가사에 참여하는 정도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가사작업의식과 수행간에는 집단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형태별로는 남편의 가사작업 정도가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의생활 영역 ($P<.01$), 주생활영역 ($P<.001$)에서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가족형태의 단독주택집단과 공동주택집단을 대별하여 보았을 때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 가사작업 수행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집수리를 비롯하여 집안밖을 항상 돌봐야하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남편들은 주생활영역의 가사에 다른 가족형태 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참여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을 남편의 형제순위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장남의 경우는 예로부터 가장장적인 의식이 높아 가사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부인의 취업에 따른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여 부인이 취업해 있는 경우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 남편의 가사참여를 수용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오늘날 맞벌이 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 부인의 사회일과 가정일의 이중적 부담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편들의 새로운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즉 남편이 어느 정도 가사에 노력하므로써 취업한 부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전체 가사 수행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 남편의 가사노동 의식과 수행에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가사의 수행은 특히 의생활($P<.001$) 식생활($P<.001$) 영역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나 부인이 취업했을 경우 간단한 세탁이나 세탁물 정리, 혹은 간단한 음식준비나 설거지 정도는 남편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남편의 가정경영관에 따른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

남편들의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전반적인 가정경영관에 따른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은 평균값이 중위점(2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10가지의 가정경영관 요인중 「家督主義 子女觀」이 높을수록 오히려 가사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P<.05$)를 보여 기타의 요인별로 나타난 가사에 대한 의식수준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정에서 자녀를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는 남편들의 경우는 다소 전통적인 성역할개념을 강조하여 가사를 비롯한 생활교육시 가장장적인 남성들의 권위를 보여주게 되므로 가사 참여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남편들의 가정경영관의 각 요인에 따른 가사노동 수행은 「孝親崇拜의 和睦 및 孝友爲主의 傳統的 序次意識」을 강조하는 남편들의 경우, 육아와 가족시중영역($P<.001$)과 가정경영영역($P<.001$)에서 더욱 협조하고 조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을 돌보며 부모님을 섬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일련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굳이 가사라는 개념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예로부터 자신이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로 여겨왔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溫故而知新 및 孝誠과 清廉意識」이 높은 남편일수록 육아 및 가족시중영역($P<.01$)과 가정경영($P<.01$) 영역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경영관 중 「自我克己의 謹厚와 體面意識」이 높은 남편일수록 주생활영역($P<.05$)과 육아·가족시중($P<.05$)영역에 더 많이 참여하여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自己犧牲的 謹厚와 體面意識」이 높을수록 주생활 영역($P<.01$)에 조력하며, 육아 및 가족시중($P<.05$)과 가정경영($P<.05$)영역은

〈표 4〉 남편의 가정경영관과 가사직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

| 가정경영관 | 가사직업에 대한 의식 | | | | 가사직업의 수행 | | | | | | | | | | | |
|----------------------------|-------------|-----|------|-------|----------|------|-------|--------|---|----------|----------|---------|------|-----|---|-----|
| | 구분 | N | M | DMR | 의 | | 식 | | 주 | | 육아·가정시중 | | 가정경영 | | 계 | |
| | | | |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M | DMR |
| 표진승상의 학부 및 표우 위주의 전통적 서치의의 | 상 | 275 | 2.36 | | | 1.61 | 1.57 | 2.35 | | 2.19 | 2.32 | 2.01 | | | | |
| | 中 | 160 | 2.35 | | | 1.64 | 1.57 | 2.22 | | 2.06 | 2.14 | 1.93 | | | | |
| | 下 | 10 | 2.25 | | | 1.50 | 1.35 | 2.10 | | 1.78 | 2.20 | 1.79 | | | | |
| | 계 및 F | 445 | | 0.48 | | 1.62 | 0.82 | 3.47 | | 8.28*** | 8.09*** | 4.33 | | | | |
| 근감절약 및 화부의의 | 상 | 254 | 2.32 | | | 1.61 | 1.54 | 2.33 | | 2.17 | 2.32 | 1.99 | | | | |
| | 中 | 187 | 2.40 | | | 1.64 | 1.59 | 2.27 | | 2.09 | 2.17 | 1.95 | | | | |
| | 下 | 4 | 2.18 | | | 1.63 | 1.38 | 2.44 | | 1.94 | 2.25 | 1.93 | | | | |
| | 계 및 F | 445 | | 3.44 | | 0.22 | 0.80 | 0.73 | | 2.45 | 5.22 | 0.73 | | | | |
| 책임 및 승경 | 상 | 404 | 2.35 | | | 1.62 | 1.56 | 2.31 | | 2.14 | 2.26 | 1.98 | | | | |
| | 中 | 27 | 2.31 | | | 1.73 | 1.65 | 2.32 | | 2.11 | 2.20 | 2.00 | | | | |
| | 下 | 14 | 2.34 | | | 1.55 | 1.52 | 2.16 | | 1.98 | 2.16 | 1.88 | | | | |
| | 계 및 F | 445 | | 0.19 | | 0.72 | 0.42 | 0.51 | | 0.91 | 0.46 | 0.64 | | | | |
| 실리적 전략 | 상 | 386 | 2.35 | | | 1.62 | 1.56 | 2.31 | | 2.15 | 2.27 | 1.98 | | | | |
| | 中 | 40 | 2.37 | | | 1.64 | 1.63 | 2.26 | | 2.04 | 2.16 | 1.95 | | | | |
| | 下 | 19 | 2.28 | | | 1.67 | 1.46 | 2.32 | | 1.99 | 2.24 | 1.93 | | | | |
| | 계 및 F | 445 | | 0.46 | | 0.14 | 0.64 | 0.19 | | 2.32 | 0.97 | 0.30 | | | | |
| 은근지신 및 효성과 청렴의의 | 상 | 350 | 2.35 | | | 1.62 | 1.56 | 2.32 | | 2.16 | 2.09 | 1.99 | | | | |
| | 中 | 73 | 2.34 | | | 1.61 | 1.60 | 2.26 | | 2.09 | 2.15 | 1.94 | | | | |
| | 下 | 22 | 2.30 | | | 1.72 | 1.44 | 2.13 | | 1.86 | 1.98 | 1.83 | | | | |
| | 계 및 F | 445 | | 0.30 | | 0.39 | 0.75 | 1.71 | | 5.36** | 6.62** | 2.66 | | | | |
| 자이극가적 근후와 체면의의 | 상 | 187 | 2.36 | | | 1.65 | 1.59 | 2.38 | | 2.20 | 2.28 | 2.02 | | | | |
| | 中 | 115 | 2.32 | | | 1.60 | 1.47 | 2.30 | | 2.03 | 2.20 | 1.93 | | | | |
| | 下 | 143 | 2.36 | | | 1.60 | 1.60 | 2.20 | | 2.07 | 2.26 | 1.95 | | | | |
| | 계 및 F | 445 | | 0.57 | | 0.44 | 2.17 | 4.05* | | 4.37* | 1.17 | 2.64 | | | | |
| 자기화생적 근후와 체면의의 | 상 | 285 | 2.36 | | | 1.66 | 1.59 | 2.37 | | 2.18 | 2.30 | 2.02 | | | | |
| | 中 | 117 | 2.34 | | | 1.55 | 1.51 | 2.19 | | 2.03 | 2.15 | 1.87 | | | | |
| | 下 | 43 | 2.36 | | | 1.54 | 1.53 | 2.16 | | 2.09 | 2.24 | 1.91 | | | | |
| | 계 및 F | 445 | | 0.10 | | 2.46 | 1.03 | 6.29** | | 5.58** | 3.88* | 6.81** | | | | |
| 현시적 체면의의 | 상 | 392 | 2.34 | | | 1.60 | 1.55 | 2.31 | | 2.14 | 2.26 | 1.97 | | | | |
| | 中 | 35 | 2.38 | | | 1.73 | 1.60 | 2.25 | | 2.04 | 2.21 | 1.97 | | | | |
| | 下 | 18 | 2.42 | | | 1.81 | 1.69 | 2.28 | | 2.17 | 2.14 | 2.02 | | | | |
| | 계 및 F | 445 | | 0.50 | | 2.07 | 0.74 | 0.21 | | 0.84 | 0.78 | 0.14 | | | | |
| 가득위주 자녀관 | 상 | 141 | 2.28 | A | | 1.57 | 1.53 | 2.30 | | 2.14 | 2.26 | 1.96 | | | | |
| | 中 | 157 | 2.38 | B | | 1.63 | 1.55 | 2.34 | | 2.16 | 2.28 | 1.99 | | | | |
| | 下 | 147 | 2.38 | B | | 1.66 | 1.60 | 2.26 | | 2.10 | 2.22 | 1.97 | | | | |
| | 계 및 F | 445 | | 4.13* | | 1.02 | 1.76 | 0.83 | | 0.84 | 0.63 | 0.34 | | | | |
| 전통적 자녀교육관 | 상 | 162 | 2.36 | | | 1.68 | 1.66 | 2.35 | | 2.20 | 2.38 | 2.05 | | | | |
| | 中 | 159 | 2.33 | | | 1.57 | 1.50 | 2.26 | | 2.10 | 2.29 | 1.93 | | | | |
| | 下 | 124 | 2.37 | | | 1.61 | 1.52 | 2.30 | | 2.08 | 2.17 | 1.93 | | | | |
| | 계 및 F | 445 | | 0.40 | | 1.97 | 4.41* | 1.09 | | 3.50* | 8.40*** | 6.42** | | | | |
| 가정경영관 전체 | 상 | 292 | 2.35 | | | 1.63 | 1.57 | 2.35 | | 2.20 | 2.32 | 2.01 | | | | |
| | 中 | 153 | 2.35 | | | 1.61 | 1.55 | 2.22 | | 2.00 | 2.13 | 1.90 | | | | |
| | 下 | | | | | | | | | | | | | | | |
| | 계 및 F | 445 | | 0.01 | | 0.06 | 0.16 | 6.10* | | 21.42*** | 17.13*** | 10.02** | | | | |

* P<.05, ** P<.01, *** P<.001

의식이 상인 집단이 가장 많이 협조하고, 下인 집단,中人 집단의 순으로 조력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傳統的인 子女教育觀」에 대한 의식이 상인 집단의 경우, 식생활영역에서 中·下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육아 및 가족시중($P<.05$) 그리고 가정경영영역($P<.001$)은 「傳統的인 子女教育觀」이 높을수록 더 많은 협조와 조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남편들의 가정경영관의 의식이 높을수록 주생활영역($P<.05$)과 육아·가족시중($P<.001$), 가정경영($P<.001$) 영역에 협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편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 신념 등이 올바르게 확고한 가정경영관으로 정립되어 있을 때 주생활, 육아, 가족시중, 가정경영영역의 협조를 하고 있으나, 아직 식생활이나 의생활영역까지의 조력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家庭經營觀이 傳統生活文化속에서 우리가 신중히 계승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들을 적용시킨 결과임을 감안할 때 남성과 여성의 특성 및 그들의 성격·흥미에 맞는 가사영역을 구분하여 서로 협조해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부부가 가사의 책임을 함께하여 민주적인 가정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으나, 확실적인 협조와 공동분담 이라기 보다는, 남편과 주부의 각기 특성에 맞는 가사영역을 책임지는 가사 분담과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전통생활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현실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남편의 가정경영관과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 및 수행에 관한 관계를 연구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운영에 참여하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찾아 나가는데 필요한 교육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선조의 규범류 등 고문헌과 선행연구에 근거한 가정경영관 및 남편의 가사 참여 의식과 수행 측정 질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약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남편의 가정경영관

남편의 가정경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 본인의 학력, 부인의 학력,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동거형태, 가옥형태, 형제순위, 주부의 취업상태 등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自我克己의 謹厚와 體面意識」의 가정경영관은 높게 나타난 반면 남편 본인의 학력과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傳統的 子女教育觀」의 가정경영관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결혼지속년수가 높을수록 「自我克己의 謹厚와 體面意識」의 가정경영관은 높게 나타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傳統的 子女教育觀」의 가정경영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동거형태별로는 신혼때 부터 동거한 후 분가한 경우가 「家督主義 子女觀」의 가정경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勤儉節約 및 和睦意識」, 「實利的 儉約」의 가정경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自我克己의 謹厚와 體面意識」의 가정경영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재래식 부엌의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自己犧牲的 謹厚와 體面意識」의 가정경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형제순위 별로는 장남인 경우 責任 및 崇敬의 가정경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가 비취업 상태에 있을 때 「家督主義 子女觀」의 家庭經營觀이 높게 나타났다.

• 연구문제2: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

남편의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인의 취업상태로 부인이 현재 취업하고 있는 경우, 비취업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남편의 가사노동에 대한 수행은 전체적으로 부부의 결혼지속년수, 자녀수, 가옥형태, 부인의 취업상태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를 보였다. 각 영역별로는 식생활 영역은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주생활 영역은 남편의 연령이 높을 때 더 수행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생활 영역에 대한 남편의 가사수행은 부인의 학력이 중졸이하일 때 가장 높았고, 대졸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식생활 영역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작업 수행정도는 높게 나타났고, 주

생활 영역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5년미만일 때 가장 높고, 5년~10년미만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녀수별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은 식생활 영역에서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았고, 주생활 영역에서 자녀가 없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별 남편의 가사수행은 의생활영역과 식생활영역 모두 단독 주택 거주자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수행은 의생활·식생활 영역에서 부인이 직장이 없는 경우보다는 취업하고 있을 때 그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연구문제3: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남편들의 가정경영관에 따른 가사작업에 대한 의식과 수행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남편들의 가정경영관에 따른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가사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가사의 수행은 전반적으로 남편의 가정경영관이 높을수록 주생활영역과 육아·가족시중·가정경영 영역에 실제 협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생활이나 의생활 영역의 조력은 미흡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제언을 하면,

1) 고학력 남편의 경우 저학력 남편보다는 전반적인 가정경영관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한 올바른 전통생활문화 가치의 계승에 관한 교양강좌를 사회교육기관이나 일반기업체의 사내교육식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전통생활문화에 대한 현대적인 재조명의 가치를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형제순위에 따라 가정경영관의 「責任과 崇敬意識」과 관련된 가정운영의 책임에 차이를 보이나, 이제는 性이나 兄弟順位에 따라 輕·吊를 가름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가족각자가 스스로 가정생활에 대한 責任意識을 뚜렷이 가질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양육시 형제순위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태도를 지양하고, 개인 스스로의 삶과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훈육해야 할 것이다.

2)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들의 의식이나 협조는 취업주부 가정에서, 그리고 남편의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주생활영역에서 높았다. 이와같은 결과에서 취업주부 가정의 남편의 가사수행은 앞으로 더욱 요구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남아 교육시에도 가사의 영역·性的 구분의 의해 책임지우는 태도는 절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연구결과 남편들의 식생활·의생활영역 등의 가사조력은 미흡하므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정기기 및 설비 활용에 대한 광고매체를 통한 남편들의 가사노동 수행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효과를 이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3) 우리의 전통생활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민주적인 가정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뚜렷한 가정경영관의 정립과 함께 가정경영에 대한 부부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가사의 공동분담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남편들의 가사수행은 주생활과 가정경영의 조력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그 영역에 임하는데 만족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생긴다. 따라서 남편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심, 가사에 대한 만족 등을 알아본 후 가사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에서는 획일적인 가사분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의 남편이 어떠한 가사 영역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전통생활문화를 토대로한 가정경영관과 의사결정유형, 가정관리행동, 생활양식, 가정관리능력 등 가정관리학 연구의 제반 영역과의 관련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생활을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토대위에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戒女書」
- 2) 공덕권 외 4명,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pp.109~113.
- 3) 「규동요람」
- 4) 「閨閣叢書」
- 5) 김경미·임정빈,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권 1호, 1987, pp.145~165.
- 6) 김성희·이기영,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평가 비교연구”, 서울대 가정대학 생활과

- 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제14권, 1989, pp.15~27.
- 7) 김의숙,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Ⅰ)”, 대한가정학회지 제19 권4호, 1981, pp.55~64.
- 8) 「內訓」, 정양완 역주, 학원사, 1988.
- 9) 문숙재, 「가정생산」, 신광출판사, 1988.
- 10) ———,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관한 의식과 실태조사”, 이대논총 37집, 1980, pp.351~369.
- 11) 문숙재·정은숙, “도시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권 3호, 1985.
- 12) 「士小節」
- 13) 서병숙·고경미, “대학생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권1호, 1988, pp.205~221.
- 14) 서영숙·조필교, “가족성원간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권 4호, 1976, pp.1021~1033.
- 15) 송혜림·이기영,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13권, 1988, pp.15~27.
- 16) 옥선화, “한국 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Ⅰ)”, 성심여자대학논문집 11집, 1980, pp.77~91.
- 17) ———, “한국 도시가족의 역할구조 분석(Ⅱ)”, 성심여자대학논문집 13집, 1982, pp.5~34.
- 18) 유중림, 「증보 산림경제」, 이승창 역,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19) 윤명희, “도시 남편의 결혼 만족도와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18~32.
- 20) 이길표,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2, pp.116~130.
- 21) ———, “도시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와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권 1호, 1989, pp.141~164.
- 22) 이길표·주영애, “가정경영관과 혼례행례와의 상관연구”, 「성신연구논문집」 29집, 1989, pp.99~130.
- 23) ———·————, “도시주부의 가정경영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3집, 1989, pp.257~288.
- 24) ———·————, “전통사회 여성의 가사작업관에 관한 일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6집, 1992, 출간예정.
- 25) 이성희, “도시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26) 이연숙 외 3명,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1991, pp.57~78.
- 27) 이영미, “조선조 여성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p.18~127.
- 28) 이은식, “가사영역에서 본 한국가족의 역할구조”, 부산대학교 논문집 21집, 1976, pp.91~116.
- 29)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권 2호, 1984, pp.103~132.
- 30) ———,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3권 2호, 1985, pp.67~90.
- 31) 이정우, “가족성원간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0권 2호, 1972, pp.753~766.
- 32) ———, “한국도시여성의 가치관 연구”, 숙대 아세아 여성연구소, 「아세아 여성연구」 18집, 1979.
- 33) 임정빈·김명희,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 1984, pp.23~33.
- 34) 장명옥,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의 실태조사와 그의 효율적인 관리방법, 대한 연구”, 서울대 가정대학논문집 1권, 1976.
- 35) 大森和子, 藤藤悦, 伊藤セツ 外, “家事労働の現状と動向”(第6報) —管理の他の家事労働と主婦の意識—, 家政學雜誌, Vol.30, No.2., 1979.
- 36) 森ます美, 夫野寛子, 伊藤セツ, 大竹美登利, “都市労働者夫婦の生活時間, 生活行動(第2報)”, 家政學雜誌, Vol.34, No.8, 1983.
- 37) Elizabeth M. Dolan and Elizabeth Scannell, “Husband's and Wives' household work: moving tow-

- ard egalitarianism?",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11, No4, 1987, pp.387~399.
- 38) Karen P. Goebel and Charles B. Hennon, "Husband-Wife Division of Labor and Quality of Family Lif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8, No1, 1984, pp.61~72.
- 39) Marimiliane Szinoracz, "Women Employed: Effect on Spouses' Division of Household work",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71, No.2., 1979, pp.42~46.
- 40) Nancy J. Finley, "Theories of Family Labor as Applied to Gender Differences in Care giving for Elderly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February, 1989, pp.79~86.
- 41) Paolucci B. Olive A.H. and Nancy A.,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77.